

농가기고

후계낙농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 소통, 확신 그리고 지원정책

2015년 2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뒤로 한 채 30년간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길, 낙농인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게 됐다. 주5일 근무에 정시퇴근이 보장되어 있고, 휴무일이 있던 직장인의 삶에서 이제는 365일 업무, 정해진 휴무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어렵게 도움을 받아 휴무가 생겨도 내 소가, 내 목장이 걱정되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낙농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1년이 넘게 목장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다. 어느 직종에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계낙농인으로서 필자가 직접 겪고, 봐온 어려움을 이야기 해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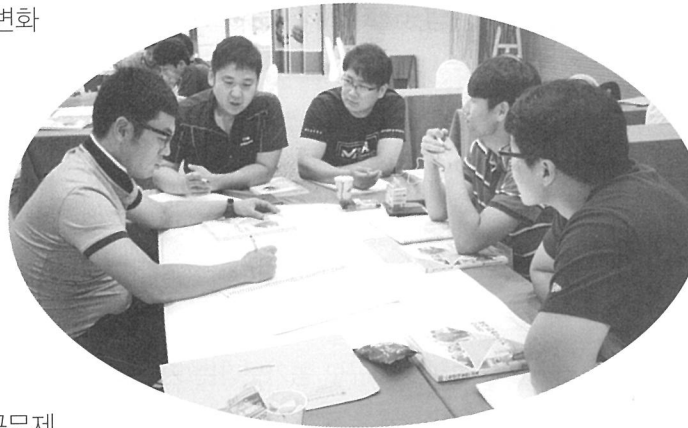
첫째로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말할 수 있다. 같이 일하기 전까지는 외동아들인 나로서는 가정에서 크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었다. 항상 상냥하셨고, 인자하셨으며 조금만 일을 도와드려도 기뻐하시던 부모님께서 지금은 다르다. 불과 글을 쓰기 몇 시간 전에도 사건이 있었다. 소를 합사시키는데, 그 방법과 시간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졌다. 이와 같이 매일, 혹은 시간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신 부모님과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제시하는 후계자의 적절한 조절이 없다면 필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 후계낙농인을 시도하였다가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갈 길을 찾아 가는 분들도 상당하다. 꾸준한



권영현

경기 김포 태흥목장

대화와 후계낙농인의 성실한 태도, 작은 부분부터 변화와 책임을 맡고, 더 나아가 작은 결실이라도 보여드리면 조금씩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신뢰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쌓여야 승계가 이루어질 때도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복지문제다. 현 시대는 예전 70~80년대 시대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 6~7일 근무에서 주5일제, 지금에 와서는 주4일제 혹은 시간근무제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될 정도로 사회는 삶의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당연히 요구되는 모습이 있다. 그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 낙농후계인들의 복지는 여전히 70~80년대에 맞춰져 있다. 물론 부모님 세대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일구어진 바탕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라며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장경영에 혁신이 필요하다. 최대한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게 동선과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록과 목장 매뉴얼을 철저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헬퍼 시스템이나, 농업법인 등 제도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규모에서도 어느 목장은 2명에서 8시간씩 일해야 하는 목장이 있고, 혼자서 4시간만 일해도 되는 목장이 있다. 최적화와 효율에 대한 접근을 통해 낙농인의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는 소속감이다.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동료와 같은 여러 직원이 주변에 있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반면, 후계낙농인은 상당수 사회적으로 무직에 가까운 신분이며, 동료라고는 가족뿐이니 갈수록 사회적으로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있어서 말솜씨와 발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하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말도 어눌하게 하고 표현력도 저하된 느낌이 든다. 게다가 결혼 적령기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까 염려하는 낙농후계인이 있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다. 주변 후계낙농인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정보와 정서적 공감을 시도하고, 운동이나 취미, 봉사활동, 종교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시도해야 하는 건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겠다.

넷째, 위기의 낙농업이다. 어떤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 목장을 운영한다 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낙농업은 사양사업이며, 위기의 업종이다.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정점에 올라 이제 한 바퀴 돌면 떨어질 것을 알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최선으로 목장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 끊임없는 마음다지기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데서 시작하여, 국가에 기여하는 일임을 확신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에 이 일이 소중하다고 마음에 새겨놓아 본다.

다섯째, 정책은 소규모 농가보다는 기업농을 위한 경우가 많음을 느끼게 된다. 현재 모든 농가가 기업농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의 필요성이 기존보다 월등하게 요구된다. 토지, 시설, 건물, 기본생산량 등 소규모 농장에서는 새로운 투자가 쉽지 않다. 보다 선진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농가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농가도 경쟁력을 갖추고 공존해 갈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정책이 있다면 상생의 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본디 상생은 어려운 것이다. 약하고 어린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살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 낙농가에 기대한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후계낙농인들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믿는다. 후계낙농인들이여, 모두 힘을 냅시다! ☺

